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절대목표

- 복음으로 여는 요한이서 -

이사야14:12-15, 요한이서1:7-11

정윤돈 목사님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창조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에게 속았고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갈등하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성취되어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땅 끝까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씨를 따라 필요한 모든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도 나중심이 되면 사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들어왔을 때,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진리를 찾고 질문만 바로해도 오직 예수가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언약따라 말씀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한다.

완전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언약의 여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직 예수와 완전복음을 믿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탄과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과 세상과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사탄은 태초부터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사탄은 우리들이 완전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속인다. 사탄은 무속, 점술, 우상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제양과 저주를 가져다준다.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 사탄은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처럼 속이고 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배중심이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사탄이 쓰는 가장 중요한 무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완전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사탄

도 벌벌 떠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절대목표를 미션으로 주었다. 그 최종 목표는 사탄과 세상에 하나님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 절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은 요한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절대목표를 발견하고자 한다. 특별히 요한이서 말씀 전체는 한 장이고, 총 13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중요 성구와 단어를 강해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1. 1절에 ‘장로인 나는’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지칭하고 있다.

당시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전담하는 장로였고, 다른 장로는 교회와 전도자와 성도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였다. 이 장로들은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 혹은 안수집사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칭한 것은 전자의 장로로써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장 큰 전도는 복음중심의 부교역자가 나오는 것이다.

(1) 2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구체적인 대상자들에게 절대미션을 주었다. 요한일서는 전체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요한삼서는 장로를 향하여 기록한 편지이고, 요한이서는 부녀 즉, 여성성도들과 그 자녀들인 램넛트들에게 전한 구체적인 미션과 복음적인 인턴십을 위한 말씀이다.

(2) 다음은 1절 중간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녀’는 요한 사도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며, 헬라어로 쿼리아라고 하는데, ‘부인, 주부’를 의미한다. 이 부녀의 가정은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던 가난한 모자 가정이었었던 것 같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3) 그러나 그 여인과 자녀는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었다.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 것은 참 복음을 통해 우리난 참사랑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근원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with, immanuel, oneness의 축복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참사랑이 되는 것이다. 빠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배에 계속 참여하다 보면 어느 날 참사랑의 체질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절의 내용을 보면 이 부녀의 자녀들은 램넛트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다. 4절을 보겠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녀’는 자신의 영적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1장 5절에서 6절에 다음

과 같이 권하고 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복음으로 거듭났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명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 62가지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절대목표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후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2. 다음은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에는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있고 오직 예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과 전도를 막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비주의, 외침전도, 임박한 종말론(다미션교회), 구원과 등이 있다. 이들은 구원은 받을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이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장 9절의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내야 한다. 또한 1장 10절에서는 ‘왜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과거 여호와증인들은 꼭 집에 들어오려고 하였고 교회에 교제가 있는 집을 더 공략하였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과 복음적인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교인들이 논쟁을 하게 되면 거의 지게 된다.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3. 다음으로, 12절을 보면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지교회의 응답이다. 편지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나 직장이나 현장으로 가서 말씀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다락방이고 팀사역이다. 이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미션홈이고 지교회이다. 예상하건데, 분명히 나중에는 이 부녀와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그 지역에서 했을 것이다. 지교회는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237나라 5천종족의 모든 사명자들의 가정에 이러한 지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절대목표이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는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 자매의 자녀들이라면 손으로는 조카가 된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 편지를 받은 13절의 ‘부녀’는 가족복음화, 친족복음화를 이룬 것 같다. 그 가족들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교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포럼, 전도포럼, 인생포럼이 소통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부녀’가 자기의 자매와 조카들의 다락방을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여 특별히 그 조카 램넌트들이 사명자로 변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한 ‘부녀’의 헌신은 결국 친척들과 조카 램넌트들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켰던 것이다.

오늘도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 CVDIP를 발견하고 자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은 어떠한 사탄의 속임수에도 속지 않는 완전복음과 완전사랑 안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종족의 빈 곳에 5천만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24시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기도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란다. 찾기만 하면 결국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생생히 그려질 정도로 집중하여 기도만 하면 된다. 응답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한주간도 참 복음과 참사랑으로 사탄이 가져다준 미움과 분열을 뛰어넘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가족을 구원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흐름따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제자,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중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교단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